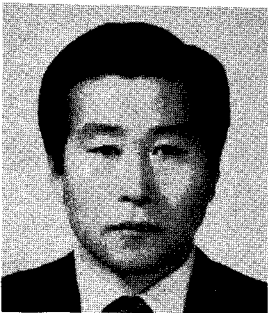


1983년도 동물약품 판매현황

'83년은 호경기로 시작하여
불경기로 끝난 한해였다
경기침체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양계파동은 이미 안정세에 있어
힘을 모아 노력하면 호전될 것이다
어려운 때일수록 소홀히 하기 쉬운
방역에 힘써 불의의 손실을 입지
않도록 하는 것도
불황을 극복하는 지혜일 것이다



이희구
(한국동물약품협회 전무)

지난 83년도의 동물약품의 판매실적은 수입
완제품을 제외하고 총 5백72억 7천 4백 만원
으로 전년도 4백 5억 7천 8 백만원과 비교하여
41.8%의 신장율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전년
도의 신장율 49.8%와 비교하여 다소 줄어든 것
으로 최근 몇 년간 상승세이던 신장율이 일단
수그러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1. 약효별 판매동향

먼저 약효별로 판매현황을 살펴보면 비타민
제를 주종으로 하는 대사성제제가 1백61억8천
8백 만원으로 전체 판매액의 28.27%를 차지하
여 여전히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항생물질제가 1백43억 4천 1백만
원으로 25.04%를, 방충살충제와 살균소독제 및
기타 사료첨가제를 주종으로 하는 (치료를 주목
적으로 하지 않는) 약품이 81억 2천 3백 만원으
로 14.18%를, 원료 동물약품이 51억 6천 1백만
원으로 9.01%를 각각 점유하고 있다. 이 밖에
백신류를 주종으로 하는 생물학적 제제가 30억
7천7백 만원으로 5.37%를, 소화기관계용 제제
와 호르몬제 등을 주종으로 하는 개개의 기관계
용제품이 3.19%를 각각 점유하고 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여 점유율이 늘어난 품목
을 살펴보면 생물학적 제제가 4.59%에서 5.37

%로 치료를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약품이 13.40%에서 14.22%로, 개개의 기관계용 약품이 2.57%에서 3.19%로 각각 판매비중이 다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판매비중이 낮아진 품목으로는 항병원성 약품이 15.04%에서 14.18%로, 대사성 약품이 29.15%에서 28.27%로, 항생물질 제제가 25.43%에서 25.04%로, 원료 동물약품이 9.10%에서 9.01%로 다소의 감소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변동폭이 82년도와 비교하여 볼 때 모두가 1% 이내에서 증감하고 있어 약효별 시장 점유율은 전반적으로 안정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판매액의 증가율을 보면 개개의 기관계용 약품이(비노생식기관계용, 의피용, 감각기관계용 등이 배 이상 증가) 75.14%가 증가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생물학적 제제가 65.34%로 그 다음으로 높은 신장율을 보이고 있고, 치료를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약이 49.75%로 비교적 높은 신장율을 유지하고 있다. 또 42.77%의 신장율을 보인 대사성 약품과 42.27%의 신장율을 보인 신경계용 약품, 39.71%의 신장율을 보인 원료 동물약품은 평균 신장율과 거의 비슷한 정도의 신장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에 38.99%의 신장율을 보인 항생물질 제제와 33.08%가 신장된 항병원성 약품은 평균 신장율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82년도와 비교하여 비교적 고른 성장을 한 한해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백신류가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은 뉴캐슬병에 대한 관심과 홍보로 뉴캐슬 백신의 사용이 증가되었고, 돼지의 급증으로 돈콜레라 백신, 돈뇌염 백신 등의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구충제가 배 이상의 신장율을 보인 것은 가축 사육두수가 늘어남과 동시에 양축가들의 구충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고, 알벤다졸 제제가 등장한 것도 큰 요인으로 볼 수 있겠다.

기타 사료첨가제로는 메치오닌을 주종으로 하는 아미노산제와 생균효소제 등이 있는데, 증가

요인은 배합사료의 생산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을뿐 아니라 배합사료 원료로 대두박을 사용함에 따라 메치오닌의 사용이 꾸준히 늘고 있으며, 항생제가 내성이 문제가 되고 있어 내성이 없이 성장 촉진과 정장제로서의 효과도 있는 생균효소제의 소비가 증가한 때문이라고 생각 된다.

방충살충제는 새로운 제제인 사이퍼스린이 좋은 반응을 얻어 판매 증가의 주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과다 경쟁으로 인해 생산에 비하여 판매가 저조한 현상을 보였다.

비교적 저조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항생물질제와 설파제, 항콕시딕제, 항원충제 등의 치료제들은 백신류의 높은 증가율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이는 백신의 사용이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질병의 발생이 줄어든 것으로 여겨진다.

비타민제는 경구투여용이 10.92%, 사료첨가용이 35.58%의 성장에 그쳐 전체적으로 32.25%의 저조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하반기에 들어 양돈파동 등으로 인한 경기 침체로 비타민제의 사용이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되며, 경기가 나빠지면 비타민제의 사용부터 줄어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83년도는 주문용 사료첨가제가 처음으로 도입된 해였는데, 주문용 사료첨가제의 판매금액은 31억 5천 1백 만원으로 총 판매금액의 5.5%를 차지하였으며,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 주요품목 판매동향

제품별로 판매현황을 살펴 보면 2억 이상 판매실적을 기록한 제품은 총 49개 품목(원료 제외)이며, 이들 품목의 판매 합계액은 1백 78억 1천 5백 만원으로 총 판매금액의 31.1%를 차지하고 있다. 가장 많이 판매된 품목은 항콕시딕제인 콕시스타크(한국화이자)로 9억 5천 6백 만원을 기록하였으며, 그 뒤를 이어 메치오닌 50(한국바이엘)이 8억 2천 1백 만원이었고,

표. '83 약효별 동물약품 판매실적

약 효 별	82	점 유 율	83	점 유 율	82/83(%)
신경계용 약품	291	0.72	414	0.72	42.27
중추신경계용	216	0.53	332	0.58	53.70
말초신경계용	17	0.04	19	0.03	11.76
알레르기용	58	0.15	63	0.11	8.62
개개의 기관계용 약품	1,042	2.57	1,825	3.19	75.14
순환기관계용	24	0.06	36	0.06	50.00
호흡기관계용	10	0.03	19	0.04	90.00
소화기관계용	472	1.16	711	1.24	50.64
비뇨생식기관계용	118	0.29	237	0.41	100.85
호르몬제	303	0.75	535	0.94	76.57
외피용제	113	0.28	275	0.48	143.36
감각기관계용	2	0	12	0.02	500.00
대사성 약품	11,829	29.15	16,188	28.27	42.77
경구투여용 비타민제	1,685	4.15	1,869	3.26	10.92
사료첨가용 비타민제	9,126	22.49	12,373	21.61	35.58
주사용 비타민제	230	0.57	360	0.63	56.52
일반대사성 약품	788	1.94	1,586	2.77	101.27
항병원성 약품	6,104	15.04	8,123	14.18	33.08
화학요법제	2,952	7.27	3,746	6.54	26.90
항원충제	179	0.44	180	0.31	0.56
항콕시듬제	2,457	6.06	3,132	5.47	27.47
구충제	516	1.27	1,065	1.86	106.40
항생물질 제제	10,318	25.43	14,341	25.04	38.99
경구투여용 항생물질제	3,981	8.91	4,898	8.55	23.03
사료첨가용 항생물질제	3,942	9.71	5,408	9.44	37.19
주사용 항생물질제	2,154	5.31	3,611	6.31	67.64
주입용·삽입용 및 외피용	241	0.59	424	0.74	75.93
항생물질제					
생물학적 제제	1,861	4.59	3,077	5.37	65.34
백신류	1,829	4.52	3,008	5.25	64.46
혈청류	26	0.06	42	0.07	61.54
진단용약	2	0	23	0.04	1,050.00
기타	4	0.01	4	0.01	0
치료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약품	5,439	13.40	8,145	14.22	49.75
살균소독제	831	2.05	1,246	2.18	49.94
방충살충제	1,473	3.63	2,099	3.66	42.50
기타 사료첨가제	3,135	7.72	4,800	8.38	53.11
원료동물약품	3,694	9.10	5,161	9.01	39.71
호르몬제	6	0.01	16	0.03	166.67
비타민제	1,833	4.52	2,487	4.34	35.68
설파제	193	0.48	299	0.52	54.92
항생물질제	690	1.70	1,010	1.76	46.38
기 타	972	2.39	1,350	2.36	38.89
총 계	40,578	100	57,274	100	41.14

82년도 1위 품목이었던 성장촉진 및 하리에방용 화학요법제 바이오녹스(한국바이엘)는 7억 8천 8백 만원으로 각각 2, 3위를 차지하였다.

제제별로는 비타민제가 12개 품목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항생물질제가 11개 품목, 메치오닌을 비롯한 기타 사료첨가제가 7개 품목으로 되어 있다.

3. 업체별 판매실적

업체별로 판매 실적을 살펴보면 50억원 이상인 업체가 1개 업체, 30억원 이상이 2개 업체, 20억원 이상이 6개 업체이며, 10억원 이상인 업체는 12개 업체로 나타나 있다.

20억원 이상의 판매실적을 올린 업체는 9개 업체로 47개 업체의 19%에 해당되며, 이들 9개 업체의 판매합계는 3백14억 4천 6백 만원으

로 전체 판매액의 54.9%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10억원 이상의 판매실적을 올린 업체는 전체의 45%에 해당하는 21개 업체로 이들의 판매합계는 전체 판매액의 86.5%에 달하는 4백95억 6천 9백 만원으로 나타나 있다.

4. 맺는말

83년도는 상반기에 호경기로 시작하여 하반기에 불경기로 끝난 한해였다고 할수 있을 것이다. 경기가 침체된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가장 큰 원인이었던 양제파동은 이미 안정세에 있고 양돈파동도 회복이 될 전망이므로 모두 힘을 모아 노력하면 경기는 호전되리라 생각한다. 특히 어려운 때일수록 소홀히하기 쉬운 질병예방 및 방역에 힘써서 불의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지 않도록 하는 것도 불황을 극복하는 지혜일 것이다.

PUMISET

품질에서 단연 앞선 평농의 부화기

- PUMISET은 현대적 부화기능을 갖춘 기계입니다.
- 더욱 새로운 품질로 개선되었습니다.
- FRP 판넬 캐비닛 • PP 난좌 및 철재내부
- 정밀한 자동제어 • 세련된 외양
- 해외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 PUMISET은 귀하에게 더욱 많은 이익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RS 平農畜機

경기도 평택군 진위면 가곡리 536-1
 TEL : 송탄 (0333) 4-7484
 서울(아간) 803-6724